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아주 평범한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다소 출발이 늦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닻을 올려 모든 승객들로부터 환영받는 낙진호가

힘차게 고동을 울리며 출항하기를 바란다. ☺

낙농가·유업체와 삼위일체 하는 낙농진흥회가 되길 바란다.

99년 1월 낙농진흥회가 출범하게 됨에
우리 낙농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낙농진흥회·낙농가·유업체가 삼위일체가 되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낙농발전을 위한
밀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박순식
전주원주낙우회장

우선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7년 낙농진흥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98년은 IMF에 의한 영향이 우리 낙농업계에도 미쳐 일부 유업체가 부도를 내고, 우리 낙농가들은 원유대조차도 받지 못하는 등 하루하루를 좌절로 보내야 하는 가장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 동안 농·소·정 모두가 협력하여 저능력우 도태, 송아지 수매, 분유 대북지원, 우유 소비 운동, 낙농자조금에 의한 홍보대책을 전개함으로써 다행히도 최근에는 낙농산업이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40여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IMF체제에 의해 다시 있어

서는 안 될 최대의 위기를 맞은 98년을 겪으면서 99년 1월 낙농진흥회가 출범하게 됨에 우리 낙농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유제품의 수급·수매·비축·방출 등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어 원유와 유제품의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한다.

낙농진흥회는 우리 낙농가에게는 아직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원유의 계약 생산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나 시행 초기인 만큼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실행에 옮겼으면 한다.

우선 낙농진흥회는 원유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제도화하고 집유 일원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한편 낙농가와 유업체가 분쟁이 많

은 원유검사를 공영화하고 낙농가는 철저한 시양관리와 과학적인 생산으로 우유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외국제품과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이겨나가며, 유업체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을 하는데 노력 을 거듭하여 낙농진흥회·낙농가·유업체가 삼위일체가 되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낙농발전을 위한 밀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낙농진흥회의 설립을 놓고 많은 문제제기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 이는 낙농업을 사랑하는 분들의 조언으로 받아들여 낙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낙농진흥회가 되었으면 한다. ☺